

K-반도체, HBM 시장 점유율 83%… 삼성전자 12%p ‘깁충’

韓 기업 합산 점유율 전분기비 4%↑
SK하이닉스, 매출 기준 점유율 50%
삼성전자, HBM4 출하… 상승세 기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글로벌 고대역 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을 전 분기 대비 12%포인트(p) 끌어올리며 1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17%p까지 좁혔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매출 기준 점유율 50%로 1위를 지켰다. 다만 전 분기(58%)보다 8%p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21%에서 33%로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21%에서 18%로 하락했다.

양사 격차는 1분기 37%p에서 2분기 17%p로 축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SK하이닉스가 64%에서 14%p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삼성전자는 15%에서 18%p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69%였던 SK하이닉스 점유율은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50%까지 내려왔다. 한국 기업 합산 점유율은 83%로 전 분기(79%)보다 확대됐다. 세 분기 연속 21%를 유지했던 마이크

론은 이번 분기 18%로 밀렸다.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분이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 뒤편에서도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HBM4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점유율이 점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HBM 매출 대부분은 5세대 HBM3E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6세대 HBM4 출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4를 가장 먼저 공급한 업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해 9월 제시했던 ‘2026년 삼성전자 HBM 점유율 30% 상회’ 전망은 2분기에 현실화됐다.

2분기 점유율 변동 배경으로는 HBM 가격 하락이 꼽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달 4일 발표한 2분기 D램 시장 분석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급등한 반면 HBM 가격은 HBM3E 단가 하락과 HBM4 출시 지연으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같은 분석에서 2분기 전체 D램 점유율은 삼성전자 39%, SK하이닉스 26%, 마이크론 25%로 집계됐다.

황진성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디렉터는 당시 “SK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HBM 출하량과 매출 비중이 높아 HBM 평균 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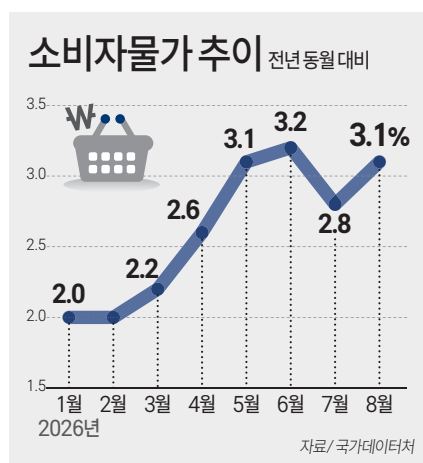
개인 서비스 등 물가압력 여전… 한은 ‘통화정책 판단’ 시험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이상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 등 영향
근원물가 중심 기조적 상승 전망
10월 추가 금리 인상론 무게 실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가지 특수요인이 숨어 있다.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물가를 0.58%포인트(p) 끌어올린 반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상승률을 약 0.5%p 낮췄다.

두 효과의 크기는 비슷했지만 산출 전제와 성격은 다르다. 통신비 효과만 제거하면 물가는 2%대 중반으로 내려가지만 개인서비스 등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도 표면적인 3.1%보다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뒤 남는 물가의 ‘근적합’에 좌우될 전망이다.

◆ 통신비는 높이고 유가상한은 낮추고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내려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에서 8월 3.4%로 0.8%p 뛰었다. 2023년 5월 3.8%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휴대전화료였다. 지난해 8월 일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요금을 한 달간 50% 감면하면서 낮아진 가격이 올해 비교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에 휴대전화료는 1년 전보다 26.7% 뛰었고 공공서비스 물가는 6.5%,

통신 부문은 16.6% 상승했다. 통신 부문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3%포인트에 달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58%p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효과를 제거할 경우 8월 물가 상승률은 약 2.5%로 낮아진다. 근원물가 역시 식료품과 에너지는 제외하지만 통신요금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 기저효과 영향이 받았다.

반대편에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가 물가를 눌렀다. 석유류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중에도 14.2% 올라 전체 물가를 0.54%p 끌어올렸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8월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약 0.5%p 높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축수산물도 출하량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2.6% 하락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p 낮췄다.

통신비와 최고가격제 효과는 서로 다른 가정에 따른 추정치여서 기계적으로

합산해 별도의 ‘실제 물가’를 만들진 않는다. 다만 하나의 물가지표 안에 상승률을 높여 보이게 한 통계적 기저효과와 낮춰 보이게 한 정책 효과가 동시에 담겼다.

◆ 복잡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시점

특수 요인을 건어낸 뒤에도 물가가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3.7% 올라 물가 상승률에 2.04%p 기여했다. 개인서비스는 3.5%,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4.0% 상승했다. 내구재 가격도 4.1% 올라 비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내년을 2.3%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근원물가는 누적된 비용 충격의 전이와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 압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2.5%의 높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새롭게 뛰지는 않았다. 8월 소비자물가의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 3년과 5년 후는 각각 2.6%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현재 기준금리 3.00%에서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단순 차감한 사전적 실질금리는 0.3%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추가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요인이지만 목표물 웃도는 근원물가와 서비스 가격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9월 물가가 다음 통화정책 판단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월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사라져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10월 추가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기조적인 물가까지 둔화할 경우 한은이 환율과 가계대출, 주택가격 흐름을 더 확인할 여지가 생긴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소멸로 8월보다 낮아지겠지만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tro

/김주형 기자 gh417@

네이버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특화 ‘정부 AI 모델’ 만든다

과기부 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국내 독자보안 AI 기술 확보 목표

네이버클라우드가 SK텔레콤과의 경쟁 끝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따냈다. 네이버의 AI 기술과 LG의 AI 역량, 국내 보안기업의 데이터·기술을 결합해 사이버 위협 분석과 취약점 탐지 등에 활용할 독자 보안 AI 모델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이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경쟁을 벌였다. AI·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기술력과 개발 경험, 개발 전략 및 기술, 목표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대규모 산학연 협력 체계와 자체 AI 모델 개발 경험 등을 앞세웠다.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연결·관리하는 ‘하네스’를 구축하는 전략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LG CNS와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샌즈랩, SZW, 이스트시큐리티, 티오리한국 등 AI·보안 기업이 참여한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포스텍 등 대학·연구기관도 힘을 보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실제 보안 수요

기관도 참여해 모델 개발에서 검증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보안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도 참여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는 AI 모델부터 인프라와 보안, 데이터까지 자체 기술을 활용해 국내 사이버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의 ‘엑스원’ 등 독자 AI 모델 개발 경험도 활용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는 최종 사업자 선정 전부터 자체 보유한 엔비디아 B200 GPU 4000장을 투입해 모델 사전 학습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업계 “공급사 중심 가격 흐름 지속 가능성”

▶▶ 1면 ‘서버용 D램 부족’서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서 D램 생산능력 확대 계획도 구체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부터 화성캠퍼스 제1단지(H1)에 범용 D램 엔드랩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제2단지와 천안캠퍼스에 분산된 엔드랩 설비를 H1으로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는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방식이다.

엔드랩은 메인랩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소자를 연결하는 웨이퍼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다. 생산시설을 한곳에 모으면 공간 이동 시간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되면 연말 삼성전자의 범용 D램 생산능력이 연초보다 약 1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4월 청주 M15X를 중심으로 10나노급 5세대(1b) D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당시 웨이퍼 기준 월 2만장에 못 미쳤던 생산능력을 내년까지 월 8만장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증산을 위해 극자외선(EUV) 장비를 M15X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1b D램은 HBM뿐 아니라 서버·PC·모바일용 DDR5와 LPDDR 계열 제품에 적용된다. 10나노급 6세대(1c) D램 양산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 생산 확대가 이어지면서 일반 D램 공급 여력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라며 “서버 D램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공급사 중심의 가격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eon@